

# 전북대 “105개 학과 모집 단위 광역화”

### 글로벌대학30 사업 통해 ‘학생 중심 대학’ 실현 두 차례 설문·학생 설명회 등 통해 지지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05개 학과의 모집 단위를 광역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생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현재 100개가 넘는 학과와 단과대학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고 광역화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학·전과 비율 확대를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복수(부) 전공 신청을 위한 성적 기준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학사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해

미래사회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학사운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융·복합 리질리언스(Resilience)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106개 모집단위를 42개로 줄이고, 2028학년도엔 24개로 광역화한다.

2025학년도에는 공대와 농생대, 사회대, 상대, 생활대, 자연대가 1개 모집단위로 광역화되고, 2028학년도에는 인문대학도 모집단위 완전 광역화가 실현된다. 이러한 광역모집은 모집인원이 3,500명 이상인 거점대학에서는 드문일이지만 전북대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에 학생들은 자기설계 부전공을



전북대학교 한옥 정문 인근에 설치된 'JNU' 조형물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하나씩 더 공부할 수 있고, 전북지역의 특화된 첨단산업 분야인 2차전지와 방위산업 관련 전공, 그리고 부인의 에코농산업이나 장수 농업시스템, 고창의 한옥건축, 남원의 뷰티산업 등 기초 지자체와의 계약학과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부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두 차례에 걸친 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설명회, 단과대학별 설명회 및 학부(과)협의, 모집단위 계획안 확정을 위한 구성원 설명회

등을 거쳐 9월 말 최종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9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학생 2,800명 중 80% 이상의 학생들이 학사구조 개편안 등에 찬성하는 등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신청서 이전인 4월에 2,4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대학 학생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여러 계획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국제학회 연구성과 ‘주목’

### 전북대 치과대학 대학원생들, 치과연구학회서 우수 신인 학술상·우수 포스터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 박사과정생(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이 최근 열린 제42차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KADR) 학술대회에서 우수 신인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우주 박사과정생도 우수포스터 학술상을 받았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치과대학 윤정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 박사과정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생체활성 나노입자에 의한 감염된 발치와의 치조골재생 증진-성경 실험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성경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감염된 치조골 결손부의 골재생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생체활성 금속 나노입자 원천 기술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치과영역에서 치주조직 및 치조골 재생을 위한 다양한 재생 치료제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북대 치과대학 대학원생들이 치과연구학회에서 우수 학술상을 수상한 모습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우주 박사과정생은 ‘임플란트 주변 골결손을 재건하는 새로운 이중상 칼슘 인산염 골이식제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효과 평가: 전향적, 다중센터 무작위 대조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치과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한 골결손부에서 새로 개발된 합성골 이식제의 효능을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대조군의 비교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한 것으로, 개발된 골이식제의 우수한 골형성 능력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골유도 재생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전동 킷보드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1일 전북경찰청과 함께 전동킷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킷보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정원초과 이용금지 △보행자 배려하기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금지 △음주 운전 금지 △개문사고 주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법규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동킷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전동 킷보드 운행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102곳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1일 전북경찰청과 함께 전동킷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경찰관들이 학생들에게 전단지 등을 나눠주고 있다.

## 지역 특성 따른 고품질 입시정보 제공

### 도교육청, 14일부터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4차례 운영

지역 특성에 따른 고품질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장광원 데오러스 대표,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 등 전국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전북대입진로진학지원단 그리고 학부모

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토크콘서트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4차산업시대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의 방향 대입 전형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지역인재 전형, 화과별 과목 선택 방법, 학과 선택 기준, 진로 설계를 위한 부모의 역할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가의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번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10월 14일과 11월 4일 전주(전주대 JJA 트홀) △11월 11일 익산(원광대 JIA 트홀) △11월 11일 익산(원광대 JIA 트홀) △12월 2일 군산(동우문화재단 동우아트홀) 등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비즈얼존을 클릭해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환경공단

### 전북환경본부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예코암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11일 시뉴테크홀에서 한국환경공단(전북환경본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환경기화활동 협업, 드론을 활용한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불법 폐기물 방지·투기 의심현장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김영주 예코암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등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서는 안병용 본부장을 비롯해 전현주 차장, 오인철 부장, 오윤열 부장, 송호용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안병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적 환경기화활동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우병훈 총장은 “드론 및 전기분해의 인력양성 및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내 군 지역서 입시설명회 마련

### 도교육청, 내일 무주 시작으로 내달 4일 완주까지

도내 군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고입과 대입을 연계한 입시설명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군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입·대입전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12일 무주를 시작으로 11월 4일 완주까지 도내 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12일 무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 △17일 임실교육지원청 시청각실 △18일 장수교육지원청 시청각실 △19일 진안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24일 순창월랜드 대강당 △25일 부안교육지원청 시청각실 △11월 4일 완주교육지원청 1층 대회의실이다. 고창은 지난 8월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

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구지원팀 강사와 고입지원단 강사가 참여해 2024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변화와 고교 유형별 고입전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입과 대입을 연계해 설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 지원전략 중심의 설명회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입주기업 다산생활건강 전북 유망 스타트업 선정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다산생활건강(대표이사 김동조)이 ‘전라북도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에 선정됐다고 11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주)다산생활건강은 2021년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임재운(약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해 새싹홍삼 추출물에 대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호미노석 침출수와 식이유황(MSM) 영양액을 활용한 새싹인삼의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 황·사포닌 증량기술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연구부(주)다산생활건강은 스마트팜 수경재배용 액체비료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한편 전북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에 선정된 (주)다산생활건강은 앞으로 TI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매칭과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사 연계 등 스타트업 데이터 관리 및 집중 육성을 받게 된다. /정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Best Menu

생크림 찹쌀떡 1봉지(12입)12,000원	흑임자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녹차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초코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딸기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고구마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우크 찹쌀떡 1봉지(10입)12,000원	??? 찹쌀떡 1봉지(??입)12,000원